

광화문 광장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 한변, 서울특별시에 세월호 불법천막 관련 정보공개 청구 -

서울 광화문광장은 국유재산으로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가 그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에 위임한 것이고,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 유족 등은 2014년 7월 이래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천막으로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불법점거하고 있는데, 광장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은 서울시는 위법상태를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서울시 예산으로 11개의 천막을 지원해 주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광화문광장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특별시는 세월호천막의 광화문광장 불법점거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위법상태 제거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공개하라.”

※ 한변은 전 날 국토교통부장관에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 별첨 : 정보공개청구서

2016. 10. 1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 태 훈